

내동댕이친 이런 상황에서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도, 닻줄을 잘라 해안가로 배를 밀어 올리는 것도 불가능했네. 곳곳에 암초가 깔린 얇은 바다가 경계를 이루고 있었으니 말이야. 연안으로 몰려온 파도가 부서질 때마다, 그 물살이 작은 만 깊숙한 안쪽까지 성난 소리를 내며 달려들어서는, 50피에도 더 넘게 육지 쪽으로 자갈을 쏘아냈네. 그린 뒤 물이 빠지면서 해변은 대부분 맨바닥이 다 드러났고, 자갈을 이리저리 굴러대며 쇠소리처럼 소름끼치게 긁어대는 소리를 냈어. 바람에 쳐들린 바다는 시시각각 더 높이 솟아올랐고, 이 섬과 호박섬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는 수면 가득 하얀 포말만이 널따랗게 펼쳐졌지만, 검고 깊게 너울지는 파도로 물거품은 움푹움푹 패여 있었지. 이 물거품은 만 안쪽 깊숙한 곳까지 뭉쳐들더니 급기야 6피에 보다는 더 높이 쌓였고, 바람이 그 표면을 휩쓸어 해안 절벽에서 반리외도 더 넘게 떨어진 내륙으로 그 거품을 실어갔다네. 무수한 포말이 송이송이 하얗게 피어올라 산 밑까지 일렬로 길게 밀려오는 모습은 마치 바다에서 눈이 솟아나는 것만 같았지. 수평선에서 나타나는 모든 조짐이 긴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알려주고 있었네. 거기 보이는 바다는 하늘하고 분간되지 않을 정도였어. 하늘에서는 무시무시한 형상의 구름떼가 끊임없이 뜯어나가 새처럼 빠른 속도로 중천을 가로질렀으나, 그 밖의 다른 구름들은 거대한 바위처럼 움직임이 없는 듯했지. 창공의 푸른빛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